

'가왕' 조용필, '대교약졸' 경지...세련되면서도 담백한 품위

두 신곡 '필링 오브 유'·'라' 호평 얻어 "콜드플레이·K팝 보이그룹 노래 같아" 희망의 연대 강조한 김이나 작사 참여

“필링 오브 유(Feeling Of You)’는 청량하고 아련한 콜드플레이 분위기다.”
 “라’는 K팝 아이돌 그룹 노래 같다.”
 ‘가왕’ 조용필(73)이 최근 발매한 EP ‘로드 투 트윈터-프렐류드 투(Road to 20-Prelude 2)’에 실린 두 신곡 ‘필링 오브 유(Feeling Of You)’와 ‘라’가 호평을 듣고 있다.
 팝 록인 ‘필링 오브 유’는 산뜻한 8비트 리듬과 신스 사운드의 다양함 그리고 말쑥한 코러스가 세련됐다.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 음악이 떠오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필이 외국 작곡가들과 함께 작곡에 참여했다. 밴드 ‘위대한 탄생’ 리더인 기타리스트 최희선과 키보디스트 최태완 두 멤버의 연주도 경쾌하다. 특히 노쇠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조용필의 담백한 목소리가 신스 팝 록에 잘 어울린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가공되지 않았다.
 외국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한 ‘라’는 조용필이 처음 도전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장르인데 또 넓어진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강렬한 신스 베이스와 비트, FX 효과 등은 최근 유행한 K팝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젊은 세대에선 신곡을 낸 그룹 ‘엔시티(NCT)’ 유닛 ‘도재정’이 불러도 어울리는 감각적인 곡이라 반응하고 있다.
 조용필의 노래는 이렇게 장르도 세련됐는데, 만들세도 우아하다. 그가 젊은 유행을 잘 쫓아간다는 건 오해다. 조용필은 그 자체로 트렌디하다. 최신 사운드와 경향을 단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텃밭에 뿌리 채심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지 방증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세련된 장인 사운드’다.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은 노장 가수의 경이로움이다. 동명 영화로 유명한 소설 ‘벤

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제목을 빌려 ‘조용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말도 나온다.
 조용필의 트렌디함이 더 높게 평가 받는 건 화려한 기교가 아닌 담백함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젠 대교약졸(大巧若拙)로 요약 가능하다. 독일 베를린 기반의 뮤직비디오 스튜디오인 프리세스 컴퓨터의 VR아티스트 겸 시각예술가인 추수(TZUSOO) 작가의 평을 빌려온 곳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 페스티벌에서 베스트 뮤직비디오 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녀는 릴체리, 립킵, 셰이(SAAY), 박지우 등 주로 젊은 감각의 뮤지션들과 뮤직비디오 작업을 했다. 이번엔 ‘필링 오브 유’ 뮤직비디오 감독을 맡았다.
 추수 감독이 인용한 대교약졸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매우 공교한 솜씨는 오히려 서투른 것 같이 보인다는 뜻인데, 그 서투름은 익숙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다. ‘아이처럼 순수하다’로 해석해야 한다. 일례로 ‘대교약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는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법을 알기 위해 평생 바쳤다”고 말하는 스페인 태생의 전설적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다. 결국 인위적인 기교를 버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추수 감독도 조용필과 그의 노래에서 이런 어린 아이 같은을 봐 동화 같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이번 두 신곡의 작사는 모두 김이나 작사가 지었다. 김 작사가는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된 싱글 ‘로드 투 트윈터-프렐류드 1’ 수록곡 ‘세렝게티처럼’ ‘찰나’도 작사했다. 앞서 두 싱글이 이번 조용필의 EP에도 실렸으니 이번 음반에 실린 네 곡 모두 김 작사가가 지은 셈이다.

“우린 이렇게 함께 있지 / 미련 없잖아 필쳐 있어, 포 유(for you) / 더 필링 오브 유(The feeling of you) / 어둠 이겨낸 새벽으로 / 비를 밀어낸 하늘 위로, 포 유(for you) / 도 필링 오브 유(The feeling of you)’로 마무리되는 ‘필링 오브 유’는 몽근한 희망이다.
 “지금, 우리 /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우린 / 저마다의 시간들 / 멀리 있는 어딘가를 향해 / 다른 누구보다 너를 믿고 / 다시 이 세상을 움직여 / 마치 처음 시작 한 것처럼 / 너의 발걸음을 가볍게”라고 얘기하는 ‘라’도 서로의 길을 응원하면서도 연대하는 법을 노래한다.
 이 두 곡의 태도가 인상적인 건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교조적이거나 가르치려는 어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건 거목임에도 겸손한 조용필의 태도와 김 작사가의 신중한 작법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거대한 우주를 새로 만드는 순간을 노래한 ‘찰나’, 무한의 기회가 펼쳐진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세렝게티처럼’과 함께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그건 사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응원의 소중함을 일반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연대의 장이다.
 뛰어난 노랫말은 은유의 문으로 들어가 현실의 문으로 나오는데, 다양한 사유를 기교로 자랑하지 않고 담백하게 뽑아내는 게 김 작사가의 감각이다. 그건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궁극의 미니멀한 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 있는 조용필의 세계관과 점점 이룬다.
 이렇게 여전히 청신한 노래의 언어를 아우르고 구사하는 조용필의 모습은 추수 감독이 연출한 ‘필링 오브 유’ 뮤직비디오에도 잘 녹아 있다.
 통통 튀는 원색적인 색감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이다. 조용필의 대표곡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못찾겠다 꾀꼬리’에 영향을 받아 한국 전통 민화 ‘자호도’에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의 디자인을 활용했다. 조용필의 시그니처인 기타·안경 등 그와 비슷한 생김새의 아바타 캐릭터도 등장한다.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세 캐릭터가 함께 여행하는 과정을 그린다.
 추수 감독은 음원 플랫폼 멜론에 공개된 ‘필링 오브 유’ 코멘터리 영상에서 조용필의 아바타에 대해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한 사진들을 보면서 시대에 구애 받지 않은 모습을 캐릭터로 만들었다”면서 “주로 색 있는 안경을 쓰고 기타를 자유자재로 연주하시는 모습이 색시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속 또 다른 두 메인 캐릭터에 대해서는 “까치는 한국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상징이 있고 호랑이는 산신령”이라면서 “둘이 함께 하면 안 좋은 기운을 밀어낸다는 민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조용필 선생님의 히트곡인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못찾겠다 꾀꼬리’에서 굉장히 재밌는 연결성을 만들어 민화로 디자인하 것”이라고 부연했다.
 뮤직비디오 속 숨겨진 디테일은 까치가 혼자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호랑이 머리 위에서 짐을 지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있다. 힘겨운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녹여내고자 했다고 추수 감독은 전했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대교약졸’은 직선

적인 서양 사상과 다른 동양의 순화사상이기도 하다며 뮤직비디오 배경을 동양의 산수화 느낌인 무릉도원으로 표현한 이유라고 전했다.
 MZ세대에서 인기가 많은 추수 감독에게도 이번 조용필과 작업은 새로웠다. “노래가 너무 좋아 스스로도 음악과 동화됐다. 독일에서 음악을 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들었는데 나이대과 어떤 종류의 음악을 하는 가수인지 파악기 힘들 정도로 신선하고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저 역시 그 도전 정신과 승부사적인 기질이 반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강점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아티스트적인 태도에 존경을 표한다. 이번 작업은 개인적인 삶에도 힘과 용기를 줬다”고 전했다.
 조용필의 젊은 도전 정신은 오프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오는 5월13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과 같은 달 27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여는 ‘2023 조용필&위대한 탄생’에서 이번 신곡을 공개한다. EP 피지컬 음반은 공연 시작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음반 매장과 콘서트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tvN도 위태...‘수목극 사라지는 안방극장’



안방극장에서 수목극이 사라지고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범 후 지상파·케이블 방송은 위기를 맞았다. 지상파 3사는 OTT와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목극을 폐지하고, 월화·금토·주말극 등에 힘을 썼다. 편성 수와 방송 회차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했지만, 시청률 10%를 넘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최근 CJ ENM 계열 케이블 채널인 tvN까지 수목극 폐지를 결정,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tvN은 배우 주원이 주연한 ‘스티라:일곱개의 조선통보’를 끝으로 수목극을 중단한다. 다음 달 25일 오후 10시30분부터 김태호 PD 예능물 ‘댄스가수 유랑단’을 내보낸다. 가수 김완선과 엄정화, 이효리, 보아, 그룹 ‘마마무’ 화사가 전국투어 콘서트를 돌며 팬들과 만나는 이야기다. tvN은 “지상파 3사도 수목극을 폐지한 상태”라며 “시청 패턴이 바뀌었고 판단했다. 드라마·예능·교양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tvN 드라마 성적 부진이 한 몫 했다. 지난해 티빙 드라마를 교차 편성해 비용을 절감했지만, 시청률 상승 효과는 누리지 못했다.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를 비롯해 ‘술꾼도시여자들’ 시즌1, ‘유미의세포들’ 시즌2 ‘내고 박원장’ 등이다. 올해 1분기(1~3월)도 전도연 주연 ‘일타스캔들’을 제외하고 부진이 이어졌다. tvN 월화극 ‘청춘열담’ ‘패밀리’부터 수목극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 시즌2부터 ‘적성스러운 아이돌’ ‘스티라’, 주말극 ‘판도라: 조작된 낙원’까지

시청률 1~3%대로 저조했다.
 이는 모기업인 CJ ENM 경영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CJ ENM은 올해 1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가 예상되며 매출액은 9923억원, 영업이익은 42억원으로 추정했다.
 OTT 티빙이 작년에만 손실 1600억원을 냈다. 가입자는 늘었지만, 오리진일 콘텐츠 제작비를 많이 투입한 영향이 컸다. 광고는 경기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했고, 영화도 ‘영웅’(감독 윤제균·누적관객수 326만명) ‘유령’(감독 이해영·66만명) ‘카운터’(감독 권혁재·39만명) 등의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해 손실 51억원이 예상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영화 시장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쳤다.
 CJ ENM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티빙은 지난해 12월 KT 계열 OTT 시즌(seszn)과 인수합병했다. 지니TV 드라마 ‘남이 될 수 있을까’ ‘딜리버리맨’ ‘종이달’ 등을 티빙에서 서비스했지만,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았다. KT가 지난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흥행 후 공격적으로 투자해 의지하는 면이 적지 않다. KT 역시 IPTV 올레TV를 지니TV로 바꾸고, 시즌이 사라지면서 티빙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초 라미란 주연 ‘잔혹한 인턴’과 김태희 주연 ‘마담이 있는 집’은 tvN 편성을 논의했지만, 각각 티빙과 지니TV 드라마로 내보낼 계획이다.
 수목극 폐지로 인한 겹치기 편성 피해도 불가했다. 올해 초 KBS 역시 수목극을 폐지, 김동욱 주연 KBS 2TV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희생양이 됐다. 뒤늦게 월화극으로 편성, 다음달 1일 오후 9시50분 첫 전파를 탈 예정이다. 약 3주 간격으로 tvN 월화극 ‘이로운 사기’와 방송이 겹쳐 주연인 김동욱만 피해를 입게 됐다. SBS는 2019년 11월 ‘시크릿 부티크’, MBC는 지난해 12월 ‘일당백집사’ 종방 후 수목극을 중단한 상태다. KT 계열 케이블채널 ENA 수목극만 남아 있지만, 방영 중인 유인나 주연 ‘보라! 데보라’는 시청률 0%대를 기록 중이다.

동물농장 이어 놀토에도...신동엽 ‘하차 논란’ 일파만파



코미디언 신동엽을 둘러싼 하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동엽이 최근 한 시상식에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예뉘려 밝혔지만 하차 요구는 오히려 ‘TV 동물농장’에 이어 ‘놀라운 토요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신동엽이 출연한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성+인물:일본편’에서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에서 신동엽이 가수 성시경과 함께 일본 AV(Adult Video) 배우들을 만나는 등 일본 현지에서 성인물 업계를 직접 둘러보고 취재하며 경험해보는 모습이 나오자 가족 프로그램인 SBS 예능프로그램 ‘TV 동물농장’과 tvN ‘놀라운 토요일’ 진행을 그만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신동엽이 성적인 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에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세대 K팝 간판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일본에서 새 앨범을 낸다.
 지난 4월 29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오는 7월5일 두 번째 일본 정규 앨범 ‘스위트(SWEET)’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는 지난 1월 낸 미니 5집

신동엽 넷플릭스 ‘성+인물:일본편’ 출연
 지난 25일 넷플릭스가 ‘성+인물:일본편’을 공개한 다음 날부터 ‘TV 동물농장’ 시청자 게시판에는 신동엽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평소 이 게시판에는 하루에 게시물이 한 두 개 올라오는 게 전부였지만, 신동엽 하차 요구 글은 26~29일 나흘 간 수백 건이 작성됐다. 내용은 대체로 ‘일본 AV 산업을 다루는 프로그램과 가족 프로그램의 대표 격인 ‘TV 동물농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다. 한 시청자는 “국민MC로 불리는 분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모르겠다”며 “자국에서도 양치화 되지 않은 일본 AV 산업을 취재하는 데 무슨 철학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선택은 연예인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이 분이 지상파에서 그것도 가족 프로그램의 대표 격인 ‘TV 동물농장’에 계속 MC로 있는 건 보기 불편하다”고 했다.
 신동엽은 2001년부터 20년 넘게 ‘TV 동물농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신동엽은 ‘마녀사냥’ ‘SNL 코리아’ 등 성적인 코드를 코미디 요소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해왔고, 성을 소재로 코미디를 해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코미디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TV 동물농장’ 하차 요구가 있었던 적도 없었다. ‘성+인

물:일본편’이 나온 이후 이전과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건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신동엽은 지난 28일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예뉘려 내놨다. 사회를 맡은 신동엽은 공동 사회자인 수치·박보검과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것들을 좋아한다. 재밌는 것도 좋아하고 야한 것도 좋아한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동엽 하차 논란은 그가 2018년부터 6년째 출연 중인 또 다른 프로그램인 ‘놀라운 토요일’로 옮겨 불었다. 현재 ‘놀라운 토요일’ 시청자 게시판에는 ‘TV 동물농장’ 시청자 게시판에서 보이는 신동엽 하차 요구와 비슷한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성+인물:일본편’에선 진행자인 신동엽과 성시경이 일본 성인물 배우를 만나고 성인물 촬영 장소에 직접 가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성 AV 배우가 적나라한 촬영 예포 소드를 공개하고 성적인 비속어를 쓰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또 신동엽이 AV 배우와 촬영을 간접 체험해보는 모습도 그려졌다. AV 배우들이 수입을 공개하며 고가 명품이나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

투바투, 오리콘차트 신기록 계속 쓸까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 타이틀곡 ‘슈가 러시 라이드(Sugar Rush Ride)’의 일본어 버전과 ‘제로 바이 원 러브송(OXI=LOVESONG)’ 일본어 버전을 비롯 일본 오리콘차트 신곡 4곡 등 총 12곡이 실린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